

-아/어도 되다

~해도 된다 — 허락

허락을 구하거나 허락할 때 씁니다. 글자 그대로는 ‘그렇게 해도 일이 된다(괜찮다)’라는 뜻이며, 그래서 거절하는 말은 이 표현을 단순히 부정한 형태가 아닙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이 ㅏ 또는 ㅑ	-아도 되다	가다 → 가도 돼요
그 밖의 모음	-어도 되다	먹다 → 먹어도 돼요
하다 동사	해도 되다	사용해도 돼요
바뀌 쓸 수 있는 말	괜찮다, 좋다	가도 괜찮아요
물을 때	-아/어도 돼요?	들어가도 돼요?
거절할 때	-(으)면 안 되다	들어가면 안 돼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: 가도 돼요, 먹어도 돼요, 해도 돼요. 의문문으로 쓰면 허락을 구하는 말이 되고, 평서문으로 쓰면 허락하는 말이 됩니다.

되다 대신 괜찮다나 좋다를 써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: 가도 괜찮아요, 먹어도 좋아요. 구어에서는 되다를 가장 많이 씁니다.

많은 학습자가 헷갈리는 부분은 거절입니다. ‘해도 돼요?’에 ‘안 된다’고 답할 때는 같은 구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-아/어도 되다의 부정(금지)은 -(으)면 안 되다. 아니요, 가면 안 돼요.

■ 예문

- 1 여기 앉아도 돼요?
- 2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.
- 3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?
- 4 안 가도 돼요.
- 5 이 옷 입어 봐도 돼요?
- 6 천천히 하셔도 돼요.

■ 비교

-(으)면 안 되다
두 표현은 허락의 짝을 이루지만 단순한 부정 관계는 아닙니다. ‘아니요’라고 답하려면 -아/어도를 -(으)면으로 바꿔야 합니다.
가도 돼요? → 네, 가도 돼요. / 아니요, 가면 안 돼요.

-(으)ㄹ 수 있다
-(으)ㄹ 수 있다는 능력이나 가능성을, -아/어도 되다는 허락을 나타냅니다. 규칙이나 다른 사람이 허락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는 -아/어도 되다를 씁니다.
수영할 수 있어요. (능력이 있음) / 수영해도 돼요. (허락됨)

-(으)세요
-(으)세요는 권하거나 지시하는 말이고, -아/어도 되다는 허락만 하는 말입니다. 자리를 권할 때 앉으세요는 따뜻하게 들리지만, 앉아도 돼요는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
여기 앉으세요. (어서 앉으시라는 권유) / 여기 앉아도 돼요. (앉는 것을 허락함)

■ 주의

- ✗ 이 컴퓨터를 사용하어도 돼요?
○ 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요?
하다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되다 앞에서 해가 됩니다. 운동해도, 공부해도, 전화해도.
- ✗ 아니요, 안 가도 돼요. — ‘가면 안 된다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○ 아니요, 가면 안 돼요.
안 가도 돼요는 ‘가지 않아도 된다’, 즉 안 가도 된다는 허락(불필요)입니다. 금지하려면 -(으)면 안 되다를 씁니다.
- ✗ 여기 앉아도 되세요?
○ 여기 앉아도 돼요?
높임은 되다가 아니라 본동사에 붙입니다. 높여야 한다면 앉으셔도 돼요라고 합니다.